

연중 제 3주일

손상오 신부/곡

시편 25(24).4-5ㄴ.6과 7ㄴㄷ.8-9(◎ 4ㄱ)

Fine

주 님, 당 신 의 길 을 알 려 주 소 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 다.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D.C.

당신은 제 구원의
당신의 어지심으로
가난한 이 당신 길
하느님이시옵니다.
저를 기억하소서.
알게 하신다.